

[강추강추] 인생 말년 수컷의 운명

부원병(夫源病) &
취사기(炊事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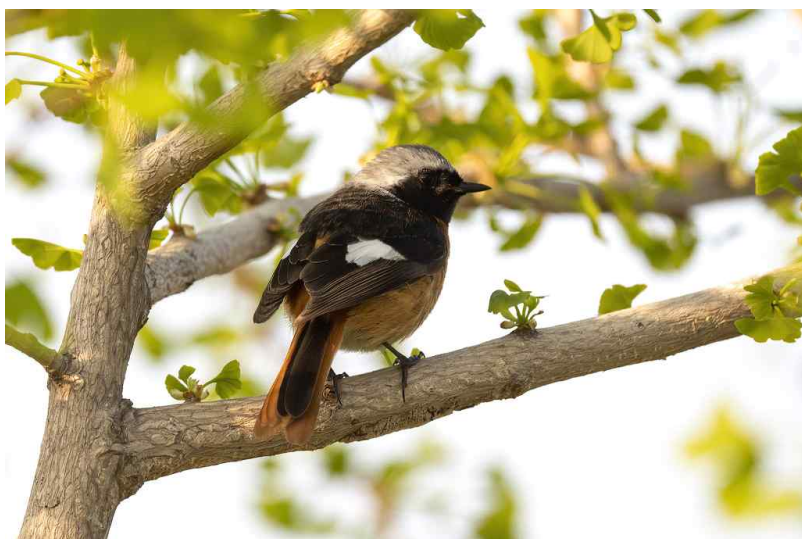
"생식과 사냥의
임무가 끝난
늙은 수컷은 가족에
집이 된다"는
만고불변의 원칙을
아는가?

'동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별반
다르지 않다.

늙은 남자가
가정에서 살아가려면,
사냥은 못하더라도
취사와 청소 등 가사는
할 수 있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분리수거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가정이 평안하게
존속되려면
남녀가 어느 정도
가사분담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



생각으로는 납득되어도
아직까지는 실천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좀 더 늙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최근에
'부원병(夫源病)'이라는
희한한 병명을
지어냈다.

정년퇴직한 남편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병이라고 한다.

은퇴한 남편이
집에 눌러앉아서
시시콜콜 참견하고,
삼시세끼 밥
차려 달라고 하면,

대개의
부인들은
말다툼을 하거나
속병이 든다.

남편 때문에
생긴 이 속병을
"부원병"이라 부른다.



남자들의
평균수명 50세 시대에는
이런 병이 없었다.

전쟁.전염병.기근이라는
'3재(災)'가 없어지면서
인류는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장수시대에
돌입하였다.

동물의 세계를 살펴보자.
아프리카
사자 무리의
습성을 보면,

수사자는 제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자마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관례다.

젊은 수사자의

도전을 받고
무리에서 쫓겨나면
혼자서 광야를 헤매다가
굶어 죽는다.

평소 암사자가
사냥해 오는 먹이를
편안하게 먹다가
집단에서 추방되어
혼자가 되면
사냥이 어려워진다.



늪은 수사자는
이런 방식으로 가차 없이
도태된다.

이렇게 생태계는
비정하다.

인도의 힌두교도
옛날 풍습을 보자,

50세가 넘는 남자는
'임서기(林棲期)'로
살게 하는 관습이
있었다.

그동안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했으므로

50세부터는
가정을 떠나
숲 속에서 혼자 살라는
그들만의 규율이자
지침이다.

그래서
동네 뒷산의
원두막 같은 데서 혼자
거지같이
살거나,

아니면 지팡이를 짚고
떠돌이 생활을 한다.

그러다 보니
바라나시에 도착해서
장작으로 화장하고,
뺨가루를 갠지스 강에
뿌리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다.



자기를 되돌아보는
수행을 하라는
종교적 의미도 있지만,
생식과 사냥의

임무가 끝난 늙은 남자는
가정에 짐이 된다는
현실적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한 사례를 보자.

고건 전 총리의 부친이
대학총장까지 지낸
'청송(淸松)' '고형곤'
박사다.

학교를 퇴직한 이후로
청송은 집을 떠나 정읍
내장산으로
혼자
들어갔다.

조그만 토굴 같은 집에서
혼자 밥 끓여 자취하면서
지냈다고 한다.

물론 가족이
반찬과 먹을거리를
가지고
왕래는 하였지만,



청송은 인생 말년을
내장산의 적막강산 속에서
보냈던 것이다.

'임서기'
(林棲期: 은퇴 후 명상 수행
고행하는 시기)가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렵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취사기'가
대안이다.

부엌에서 앞치마 두르고
밥과 설거지 등
가사를
하는 것이
취사기(炊事期)'다.

돈 많이
벌어 놓은 친구들은
큰소리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고로 새겨야 할
격언(?)이 있다.

1. ?

인 명재처
(人命在妻)!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있다.

2.?

진인사대천명
(盡人事待妻命)!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리라.

3.?

수신제가
(修身제가)!
손과 몸을 쓰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4.?

처 화만 사성
(妻和萬事成)!
아내와 화목하면
만사가 순조롭다.

5.?

순 처자
(順妻者)는 흥(興)하고,
역 처자(逆妻者)는
망(亡)한다!

6.?

아내(Wife)에게 순종하면
삶(Life)이 즐겁지만,
아내 말을 거스르면
칼(Knife)을 맞는다.



은퇴 후에,
"부원병" 생기지 않게
마누라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말년에 팽 당하지
않으려거든
"취사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겠다.

말년의 남자들이여!~~

파이팅!

[web]에서~



우리 벗님들~!
健康조심하시고
親舊들 만나
茶 한잔 (소주 한잔) 나누시는

餘裕롭고 幸福한
나날 되세요~^

